출발부터 삐걱… 지자체 자율통합 '험로'

전국 첫 순천 지역공청회 파행…주민 반대 불구 행자부 일방강행에 반발

12일 전국 최초로 순천에서 열린 지자체 자유통합 지역공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전남지역 자치단체 자율통합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지역 공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앞으로 열릴 전국 다른 자치단체 공청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이날 순천시청 별관에서 열린 '광양만권 도시통합 주민공청회'는 통합에 반대하는 광양시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하고, 여수시와 구례군도 통합 반대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공청회 파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여수시와 구례도 공청회 1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기대했던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맥빠진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이 같은 통합 반대 지역의 '보이콧'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행안부가 통합관련 주민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통합 반대 주민들은 정부추진의 통합은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는 등 관련법에도 없는 무원칙을 내세워 '순천시·순천 경실련 통합 건의안 즉각 철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작업 즉각 중단' '지역 공영을 선도할 범 광양만권 대통합 추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사회자인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 김성중 행안부 행정구역팀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 통행식' 공청회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 불참으로 인한 파행과 관련, 김성중 팀장은 "통합과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고 통합을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이어 "지역 경쟁력을 위해 전남 동부권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여론 조사 등 통합 의견을 보여 통합에 이를 경우 4천300억 원 등의 획기적인 정부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로 나선 이건철 실장은 토론에 앞서 "행정구역 통합 개편 문제는 세계적 추세며, 정부에서 강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심, 국향에 빠지다 12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막한 '제3회 꽃문화축제'를 찾은 유치원생들이 탐스럽게 핀 가을꽃들을 지켜보고 있다. 광주 지역 화훼 관련 11개 단체가 참여한 이 행사는 16일까지 열리며, 다양한 화훼작품이 선보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토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 토론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광양만권에 여수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국가 프로젝트가 대거 몰려 있는 만큼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고려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청석에 있던 광양시의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 팀장에게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통합을 밀어붙여 주민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재정적자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통합지원금을 줄 수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달음에 따라 통합 대상 지역에 대한 여론수렴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행안부는 "향후 순천·광양·여수지역에서는 더 이상 공청회가 없다"고 밝혀 공청회가 '요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충장축제 오늘 개막

18일까지 금남로·충장로 일대 다채로운 행사

광주의 도심대표 축제인 '2009 추억의 충장축제'가 13일 금남로·충장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이 오른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충장축제에는 수 천명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를 비롯한 '추억의 전시관', '추억의 동창회' 등 시공을 뛰어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0여개 단체에서 8천여명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경연은 축제 첫날인 13일 오후 4시부터 시작돼 1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수창초등학교에서 시작한 퍼레이드 행렬은 옛 전남도청을 지나 충장로, 금남로공원(2.2km) 까지 이어져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30~40년 전 충장로에 있던 이발소나 다방 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추억의 전시관'도 개막 첫날인 13일 오전 10시에 개관식을 갖고 관람객을 맞는다. 옛 중앙교회 2층 추억의 전시관에 들어선 다방을 방문한 관람객은 DJ가 전하는 가요를 들으면서 '추억의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축제부터는 지난 1970~80년대 복장을 한 연기자 20여명이 추억의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맞기로 해 한층 더 관심을 끌고 있다.

동창생과 은사를 만나는 자리인 '추억의 동창회'는 축제 이튿날인 14일부터 금남로 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전남여고 등 5개 학교가 추억의 동창회에 참가했다.

축제 기간 동안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이어진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출신 4개 팀 540여명이 참여한 '다문화 가족 추억이야기'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축제기간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금남로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귀화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의 전통 공연이나 연극 등을 선보이고, 그들의 음식을 소개한다.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은 "충장축제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이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감동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행안부 '국가인재DB' 수록 17만5천명 출신고 분석해보니

광주·전남 4개高 '상위 30걸' 랭크

광주일고(5위) 순천고(16위) 목포고(27위) 광주고(28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각 분야 전문가 17만5천882명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경기고가 2천55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남 명문고교인 전주고 1천464명, 광주일고 1천308명으로 4, 5위를 기록해 호남 출신이 국가인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인재 DB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고에 이어 서울고(1천528명), 경북고(1천496명), 전주고, 광주일고, 대전고(1명285), 경복고(1천107명), 부산고(1천74명), 진주고(947명), 경남고(936명) 순으로 전통의 '명문고'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표〉

광주·전남지역 고교 중에서는 광주일고를 비롯해 순천고 649명(16위), 목포고 492명(27위), 광주고 482명(28위) 등 4곳이 '상위 30걸'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 상위 30위권에는 대구·경북 6개, 부산·경남 5개 등 영남지역 고교가 11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 9개, 호남 6개, 충청 2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 출신고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은 경찰·치안(광주고, 조대부고, 순천고, 광주일고) 분야에서 상위 10걸 중 4곳이 포함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또 건설·교통(광주고, 순천고, 광주일고), 중앙공무원(광주일고, 순천고, 광주고) 분야에서 3개 고교가, 인사·정부관리(광주일고, 광주고), 외교·통일·국방(광주일고, 순천고) 분야에서 2개 고교가 10위권 안에 들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만8천356명으로 고려대(1만56명)·연세대(9천695명)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이어 방송통신대(8천716명), 한양대(6천26명), 성균관대(4천329명), 경북대(3천689명) 순이었다. 전남대는 2천746명으로 11위를 차지했으며 조선대는 1천552명으로 22위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국가인재 DB 출신 고교별 현황

〈상위 30개〉

순위	출신고교	등록인원(명)
1	경기고	2,559
2	서울고	1,528
3	경북고	1,496
4	전주고	1,464
5	광주일고	1,308
6	대전고	1,285
7	경복고	1,107
8	부산고	1,074
9	진주고	947
10	경남고	936
11	청주고	804
12	용산고	759
13	마산고	752
14	경동고	709
15	중동고	700
16	순천고	649
17	개성고	645
18	광주고(경기)	606
19	중앙고	601
20	휘문고	597
21	춘천고	596
22	대구고	588
23	대구상고	574
24	남성고	547
25	동아고	503
26	배제고	500
27	목포고	492
28	광주고	482
29	김천고	465
30	대륜고	460

F1대회 성공개최 청신호

국회의장·문광부장관 지원 약속

해외 기업들 투자 문의도 잇따라

2010년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자동차경주대회를 1년 앞두고 국회의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유력 정치인들이 F1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해외 유수의 기업의 투자문의가 잇따르면서 F1대회 성공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F1대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지난 10일, 영암 F1경주장 건설현장을 방문, 2010 F1대회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이날 F1대회 준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고지원금 880억 원은 기획재정부와 이미 약속된 사항"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따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17일 일본에서 개최될 아시아 관광장관회의에 참석, 2010 F1대회를 적극적으로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강조하고 "외교통상부, 한국관광공사,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와도 협의해서 해외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지난 7일 전남을 방문, 영암에 건설중인 F1경주장을 둘러본 뒤 "F1대회 성공은 국가위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F1대회에 대한 국회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지난 6일 F1경주장 건설현장을 찾은 (재)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및 영국 스포츠 마케팅 전문기업 관계자들도 "전남 F1서킷은 날씨가 좋고 주변환경이 매우 아름답다"며 "2010 한국방문의 해 중국 현지 선포식 등 해외 관광마케팅 행사에서 한국 F1대회를 최우선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무안 국제공항과 세관 등을 둘러본 FOM(세계 F1대회 운영법인) 물류담당 관계자들도 무안공항의 활주로와 계류장 시설, 통관절차 등 각종 준비상황에 만족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F1경주장 건설, F1지원법 제정, F1경주장 재원확보 등 한국 최초의 F1대회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해외 기업들의 F1관련 투자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며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2010년 F1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